

#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92호 2019년 7월 2일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Tel.+82-51-797-4665 Fax.+82-51-797-4659 △총괄: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감수:길광수 명예연구위원 △편집:김영지 연구원

## 주요내용

### 통계로 보는 북방(p.2)

- 러시아 극동·북극 지역 항만 물동량 전년 대비 증가세 계속

### 주요 동향(p.5)

#### • 동부(p.5)

- 연해주 국제운송회랑 물동량 증가로 운송로 개발 박차
- 러시아 철도청, 철광석·코크스 운송요금 25% 인상 제안
- 러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극동·북극개발부장관 방북...경협 이행 방안 논의

#### • 중부(p.11)

- 아제르바이잔 석유회사(SOCAR), 자국 발 상용 가스 유럽 공급 준비 완료

#### • 서부(p.13)

- MOL·마카로프 대학, 북극항로 운영 및 캐딜락 프로그램 협력 MOU 체결
- 러시아, 발트해 심해항 건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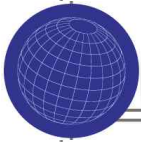
### 주요통계(p.17)

- 2018/2019년 러시아 연방관구별 15~72세 노동력 변화 추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서부권역 :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 중부권역 : 중앙아시아, 몽골 / 동부권역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 통계로 보는 북방

## ■ 러시아 극동·북극 지역 항만 물동량 전년 대비 증가세 계속

- 러시아 극동지역 및 북극지역의 항만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와 23.9% 증가했음
  - 특히 북극지역에서는 액체화물이 32.8% 증가했는데, 이는 사베타 항만을 통한 천연가스 수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임
  - 반면 아조프-흑해 지역의 항만 물동량은 전년대비 11.2%가 감소했으며, 특히 건화물이 27.6% 감소함. 이는 아조프-흑해 지역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카스피해 항만 물동량 중 건화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5%나 감소한 반면, 액체화물이 109%나 증가해 전년대비 총 물동량은 41.2% 증가했음. 이는 항만과 연결되어 있는 철도 및 도로 인프라가 개선된 결과임

2019년 1~5월 러시아 지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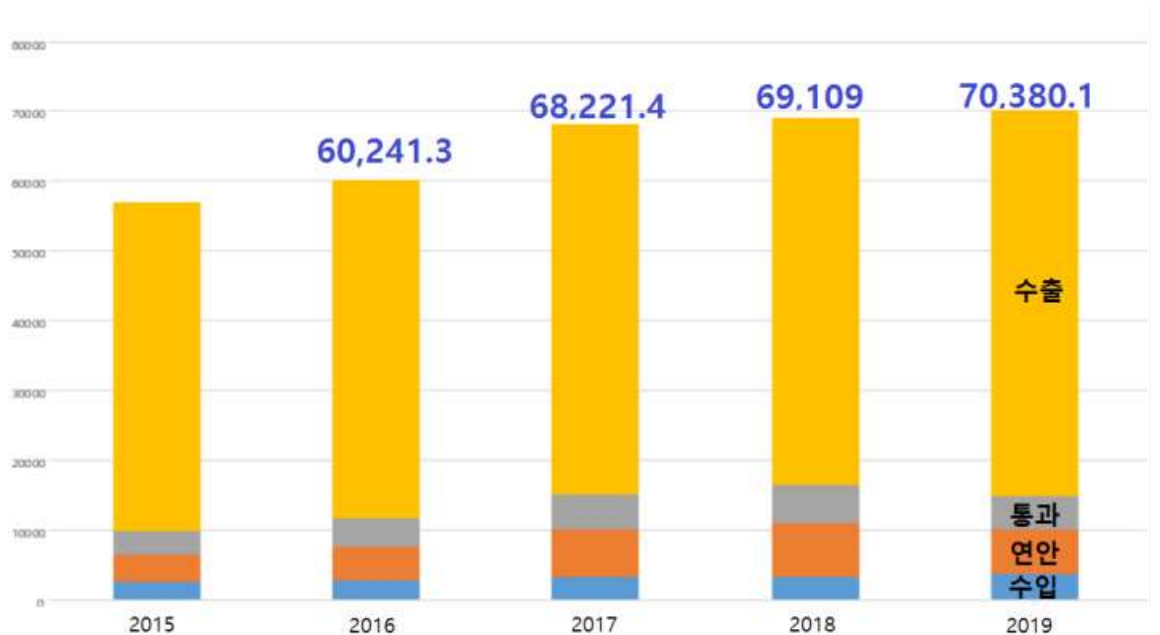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극동지역	53.9(+8.1%)	32.52(+5.4%)	86.42	+7.1%
북극지역	12.3(+5.9%)	31.01(+32.8%)	43.31	+23.9%
발트해 지역	45.95(+1.9%)	62.16(+7.4%)	108.11	+5.0%
아조프-흑해 지역	35.61(-27.6%)	63.26(+1.8%)	98.87	-11.2%
카스피해 지역	1.05(-10.5%)	1.87(+109%)	2.92	+41.2%
합계	148.82(-5.1%)	190.81(+9.0%)	339.63	+2.3%



- 러시아 항만의 총 물동량은 2016년 약 6,024만 톤에서 2017년 6,822만 톤, 2018년 6,911만 톤, 2019년 7,038만 톤으로 계속 증가했음
  - 이들 화물의 대부분은 수출화물이며, 통과화물 및 연안화물은 전년 동기 대비 올해 감소 추세를 보임
  - 상트 페테르부르크 항만이 위치한 북서지역 항만 물동량은 약 2,306만 톤으로 지역별 물동량에서 1위를 차지했음

러시아 항만 총 물동량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천 톤/매년 5월 기준)



자료: [https://www.zrpress.ru/business/primorje\\_03.06.2019\\_94359\\_v-primorje-nachali-betonirovat-skorostnuju-trassu-vladivostok--nakhodka--port-vostochnyj.html](https://www.zrpress.ru/business/primorje_03.06.2019_94359_v-primorje-nachali-betonirovat-skorostnuju-trassu-vladivostok--nakhodka--port-vostochnyj.html)

- 참고자료 : <http://www.morvesti.ru/detail.php?ID=79047> (검색일: 2019년 6월 18일)
- <https://davydov.in/economics/vlasti-namereny-uvelichit-gruzopotok-cher-ez-porty-kaspiya/> (검색일: 2019년 6월 26일)
- <http://seanews.ru/2019/06/17/ru-gruzooborot-rossijskih-portov-v-mae-2019-uvelichilsja-na-1-8/> (2019년 6월 26일)
- <https://regnum.ru/news/2649359.html> (2019년 6월 26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im.re.kr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



## 동부권역 주요 동향

### ■ 연해주 국제운송회랑 물동량 증가로 운송로 개발 박차

- 2019년 4개월간 ‘프리모리예-1’ 물동량이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약 2,228TEU를 기록함
  - ‘프리모리예-2’의 경우 올해부터 정기운송이 시작됐으며 4개월 만에 약 1,000TEU 이상 운송됨
  - 2018년 ‘프리모리예-2’ 전체 물동량은 약 661TEU로 정기운송 개시 후 물동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국제운송회랑 물동량 증가는 중국과 극동지역 간의 화물 운송량이 약 20% 증가한데 따른 것이며 증가하는 운송량을 수용하기 위해 국제운송회랑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나호드카-보스토치니항’은 국제운송회랑 ‘프리모리예-1’ 구간으로 현재 도로운송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임
  - 국제운송회랑 ‘프리모리예-1’ 1단계 건설은 2016년에 시작되었으며 연해주 아르쎈 지역에서 약 18km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임
  - 현재 2단계로 아르쎈에서 짜레브크까지 약 25km 도로를 건설 중임
  - 이번 건설은 단순히 건설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연해주지역 경제 및 극동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도로는 지역과 극동항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될 것이며 국제화물 운송로로 사용될 계획임
-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약 1,200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00여대의 각종 장비가 도입됨



‘프리모리에-1’ 도로건설 현장



자료: [https://www.zrpress.ru/business/primorje\\_03.06.2019\\_94359\\_v-primorje-nachali-betonirovat-skorostnuju-trassu-vladivostok--nakhodka--port-vostochnyj.html](https://www.zrpress.ru/business/primorje_03.06.2019_94359_v-primorje-nachali-betonirovat-skorostnuju-trassu-vladivostok--nakhodka--port-vostochnyj.html)

- 현재 ‘시린스크’ 지역에선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처음 도로공사가 시작된 약 400m 구간에는 약 24cm 두께의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음
- 올해 ‘블라디보스토크-아르쎈’ 약 1.7km 구간의 도로를 개통할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s://www.gudok.ru/news/?ID=1467434>

[https://www.zrpress.ru/business/primorje\\_03.06.2019\\_94359\\_v-primorje-nachali-betonirovat-skorostnuju-trassu-vladivostok--nakhodka--port-vostochnyj.html](https://www.zrpress.ru/business/primorje_03.06.2019_94359_v-primorje-nachali-betonirovat-skorostnuju-trassu-vladivostok--nakhodka--port-vostochnyj.html)(검색일: 2019년 6월 23일)

김은미 현지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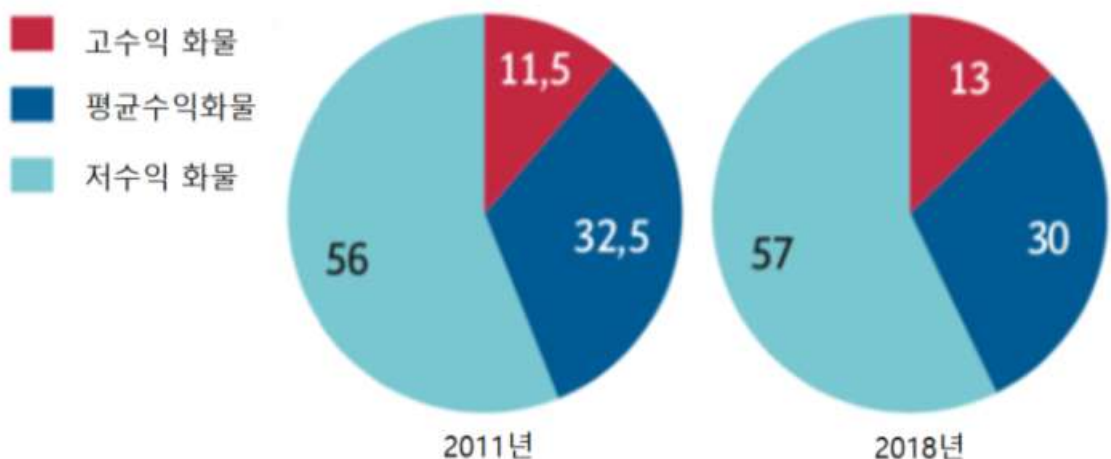
051-797-4776, usea1004@gmail.com



## ■ 러시아 철도청, 철광석·코크스 운송요금 25% 인상 제안

- 러시아 철도청이 철광석과 코크스 운송 요금을 최소 25% 인상하는 것을 연방 반독점기구(FAS)에 제안함
  - 러시아 철도청은 지난 4월, 철금속 운송 요금을 요율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코크스와 광석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 이에 대해 철광석 가격의 30~50%를 차지하는 운송료가 오르면 국내 철광석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려 생산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신용평가기관 그룹 소장 막심 후달로프)
  - 러시아 철도 요금 체계는 3가지로 분류: 1등급 화물(석탄, 광석 및 기타 원재료)은 25%의 할인과 원거리 운송에 대한 저감 계수 0.55 적용, 2등급 화물(비료, 유가공품, 식품)은 계수 1 적용, 3등급 화물(철, 비철금속, 와인, 카펫)은 확대 계수 1.74 적용. 따라서 수출용 석탄과 광석 운송에는 석유 및 석유 제품, 철강, 고철, 화학 물질, 곡물, 엔지니어링 및 금속 제품 등의 공급자들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됨(이상의 요율표는 2003년 6월 승인됨)
  - 철도청은 2003년 이후 발생한 화물 매출 구조에 따른 요금 형성구조 조정을 주장 : 고수익화물(주로 석유와 석유제품)은 파이프라인과 도로 운송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철도에는 저수익 화물이 늘어나는 추세

철도 구조에 따른 운송 화물 비율(%)



자료: <http://www.vedomosti.ru/business/articles/2019/05/28/802674-rzhd-predlozhila-izmenit-tarif-i-dlya-metallurgov#galleries%2F140737494463963%2Fnormal%2F1> (검색일: 2019.6.10.)

- 최근 몇년 간 저수익화물의 운송비율 증가로 철도청 순이익을 저해



- 2018년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청의 전체 수익률은 7.2% 증가해 약 2조 4천억 루블까지 늘어난 데 반해, 순이익은 4배 줄어듦(1,397억 루블에서 354억 루블로 감소)
- 러시아 철도 화물량 약 2.2% 증가(12억 9천만 톤): 철광석과 망간광석 1억 1,600만톤(5.7% 증가)과 비철금속 7,810만 톤(7% 증가) 포함

■ 참고자료 : <https://www.rbc.ru/business/28/05/2019/5ced41389a7947d102f32f74>(검색일: 2019년 06월 21일)

<https://www.vedomosti.ru/business/articles/2019/05/28/802674-rzhd-predloz-hila-izmenit-tarifi-dlya-metallurgov#galleries%2F140737494463963%2Fnormal%2F1>(검색일: 2019년 06월 21일)

남가영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neba95@naver.com



## ■ 러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극동·북극개발부장관 방북...경협 이행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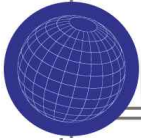
-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표단이 이달 초 북한 평양을 방문해 올 4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경협의 이행방안을 협의했음
- 이달 6일부터 8일까지의 주요 방북 목적은 지난 4월말 블라디보스톡 러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북한 측과 협의하는 것이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밝혔음
  - 그러면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양국간 통상경제 협력의 전 분야는 철저히 유엔 안보리 해당 결정에 관한 러시아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에서 논의됐다고 강조함
- 이번 러시아 대표단은 정관계 대표단 총 10명 이상으로 구성됨
  -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방북기간 동안에 철도 프로젝트, 북러 무역관 전자상거래 운용방안, 두만강 횡단 자동차 교량건설 등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대표단은 또한 김재룡 내각총리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북러 무역 경제협력 및 기타 북러 정부 간 위원회가 관할분야에 대한 협력 문제 또한 의견을 교환했음
- 양국은 북러 합작기업인 '나선콘트란스'사가 참여하는 향후 철도 프로젝트 협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들을 사안별로 논의했다고 밝힘
  - 또한 사안별 양국 실무부서 대표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프로그램을 상세히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향후 추진일정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밝힘

■ 참고자료 : <https://ria.ru/20190608/1555400408.html>(검색일: 2019년 6월 14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중부권역 주요 동향

### ■ 아제르바이잔 석유회사(SOCAR), 자국 발 상용 가스 유럽 공급 준비 완료

- 6월 15일 아제르바이잔 석유회사(SOCAR)는 카스피해 샤 데니즈-2(Şah Dəniz-2) 가스전에서 영국 BP(British Petroleum)사 주도로 생산되는 가스가 TANAP(Trans-Anatolian Gas Pipeline)을 통과해 터키-그리스 국경까지 도달하였다고 발표했다
  - SOCAR사는 그리스까지의 공급확대 성사에 대해 2018년 1월 23일 아제르바이잔-조지아 루트 공급 개시 이후 “역사적인 국가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 평가했음
  - 이미 올해 4월 15일 유럽 공급을 위한 육로 파이프라인 및 흑해 해저 루트에 생산 가스 적재 작업이 완료된 바 있음
  - TANAP 파이프라인과 아드리아해(Adriatic Sea)를 통과하는 TAP(Trans Adriatic Pipeline)과 함께 아제르바이잔 및 인접 국가들이 참여하는 ‘남부 코카서스 가스 회랑(South Caucasian Gas Corridor)’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음. 파이프라인 경유국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 그리스, 알바니아, 이탈리아임
- 로브낙 압둘라예프(Rövnəq Abdullayev) SOCAR 사장은 바쿠에서 개최된 ‘카스피의 석유가스’ 학술회의에서 자사의 공급 안정화 및 생산 증대 조치에 대해 언급했고, 향후 다른 유전지대 개발 사업에 대해 밝힌 바 있음
  - 압둘라예프 사장에 따르면 현재 가스 예상매장량 3천 5백억 입방미터로 평가되는 압세론(Abşeron) 가스전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신규 유전지대인 카라바흐(Karabakh)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은 2021~2022년경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자원 생산 증대에 힘입어 폴리프로필렌 및 화학비료 생산 등 석유가스 가공산업 신설 또한 진행되고 있음

## 남부 코카서스 가스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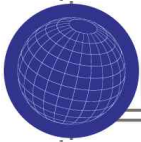


자료: Milletnews.com 2018

■ 참고자료 : <https://sputnik-georgia.ru/caucasus/20190618/245615102/Gazoprovod-s-azerbaydzhanskim-gazom-zaponen-do-granitsy-s-Gretsiey.html> (검색  
일: 2019년 6월 18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 서부권역 주요 동향

### ■ MOL·마카로프 대학, 북극항로 운영 및 캐딜락 프로그램 협력 MOU 체결

- 2019년 6월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MOL은 마카로프 해군 대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MOL은 야말 LNG 프로젝트를 위해 운항되고 있는 쇠빙용 LNG 운반선을 운영하고 있음
  - 마카로프 훈련 센터는 NK에서 승인하고 러시아 연방이 인가한 극지방 및 얼음 항법 시뮬레이션 훈련 분야의 세계적인 교육 기관 중 하나임
  - MOL 선원은 이곳에서 항해 담당관을 위한 ‘Polar water training courses’ 및 ‘Cold climate survival training course’와 같은 특별 교육을 받음
- MOL은 북극항로 운영의 선도적인 해운 회사를 목표로 함
  - 북극항로 운영에 필요한 특히 잘 훈련된 선원을 채용하기 위해 마카로프 해사 대학의 선원 훈련생을 MOL 선대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채용하기 시작함
  - MOL은 북극항로의 쇠빙선 및 운영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북극을 통한 에너지 자원 및 제품 운송에 관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확대하고 있음

Mr. Kenta Matsuzaka, MOL 대표(좌),  
Mr. Sergey O. Baryshnikov, 마카로프 해군대학교 총장(우)



자료: <https://www.mol.co.jp/en/pr/2019/19031.html>

■ 참고자료 : <https://www.mol.co.jp/en/pr/2019/19031.html>(검색일: 2019년 06월 21일)

<https://safety4sea.com/mol-signs-mou-on-nsr-cadetship-program/>

(검색일: 2019년 06월 21일)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mol-signs-up-for-northern-sea-route-cadetship-program> (검색일: 2019년 06월 21일)

권보배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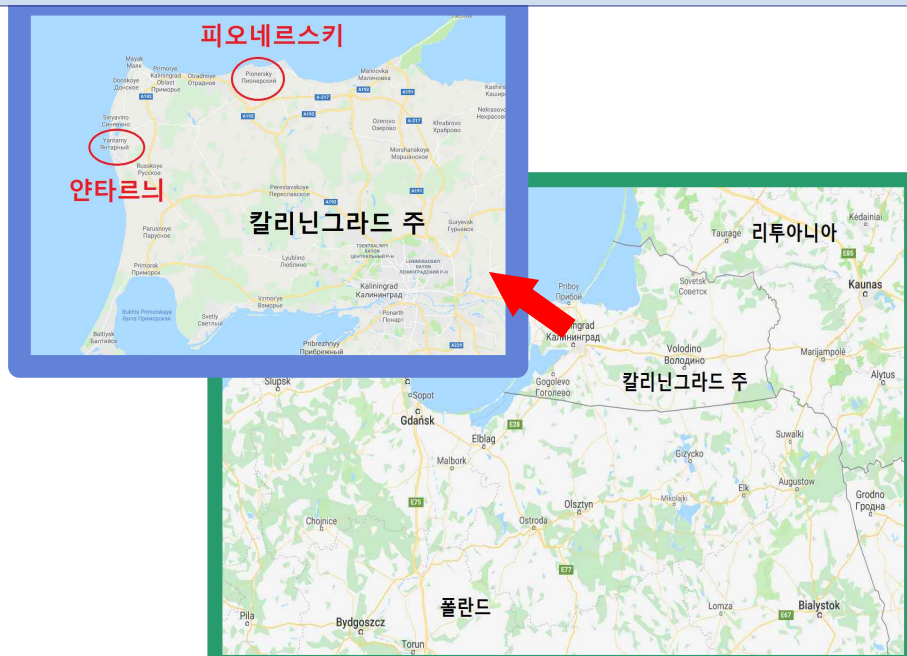
051-797-4774, b2kwon@kmi.re.kr



## ■ 러시아, 발트해 심해항 건설 추진

- 러시아가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주 안타르닉(Yantarny)시에 심해항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함
  - 5월 말 푸틴 대통령이 안타르닉시 심해항만 건설을 지지함으로써 이 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음
  - 이 사업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졌으며, 2014년부터 추진된 칼리닌그라드주의 항만인프라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됨
    - 칼리닌그라드 주의 항만인프라 개발계획은 2단계로 구성됨
      - \* 1단계는 820억 루블 규모의 피오네르스키(Pionierskij)시 화물여객항만을 건설하는 것이며, 2018년에 착수되었음
      - \* 2단계가 안타르닉시에 심해항만을 건설하는 것임
  - 사업규모는 30억 달러(2,000억 루블)로 1/4은 정부예산, 나머지는 민간투자로 충당될 것으로 보임
  - 심해항만 지역에 도로와 철도가 건설될 예정이며, 4,8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칼리닌그라드주 주요 항만



자료: 구글맵을 기반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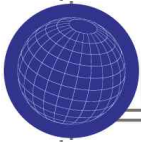


- 다만, 사업추진 준비와 외국인투자유치 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심해항만 건설은 2019년 이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칼리닌그라드주 정부기관들은 7월 1일까지 비즈니스 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중앙정부는 정부참여와 외국인투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9월 1일까지 주기로 했음
  - 이 사업이 순조롭게 실현되려면 화물수송 효율성이 러시아의 다른 항만보다 높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벨라루스, 리투아니아와 같은 주변 지역과의 화물수송이 원활하게 연계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제 공사는 2019년 이후에 착수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https://www.kommersant.ru/doc/3982096>(검색일: 2019년 06월 21일)  
<http://www.globalconstructionreview.com/news/russia-build-3bn-deepwater-port-baltic-enclave/>(검색일: 2019년 06월 21일)  
<https://russiabusinesses.com/infrastructure/putin-approves-3bn-kaliningrad-deepwater-port/>(검색일: 2019년 06월 21일)

민지영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misjee@hanmail.net



## 주요 통계

2018/2019년 러시아 연방관구별 15~72세 노동력 변화 추이

품목	2018					2019	
	1~3월	3~5월	5~7월	7~9월	9~11월	1~3월	3~5월
중앙 연방관구	21259.5	21363.0	21338.7	21402.8	21337.9	21153.5	21121.6
북서 연방관구	7488.0	7509.7	7513.7	7492.7	7495.5	7443.3	7433.7
남부 연방관구	8161.5	8202.3	8162.9	8261.4	8205.6	7984.6	8038.4
북캅카스 연방관구	4600.2	4609.7	4655.0	4676.7	4665.6	4604.8	4603.8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	14937.2	14912.2	15029.2	15164.5	15157.5	14735.2	14714.0
우랄 연방관구	6369.6	6400.2	6354.8	6376.9	6327.8	6304.4	6294.6
시베리아 연방관구	8611.9	8588.8	8612.8	8656.6	8609.7	8423.3	8462.3
극동 연방관구	4299.4	4301.5	4303.7	4324.9	4346.8	4226.7	4206.8
합계	75727.4	75887.4	75970.9	76356.6	76146.4	74875.9	74875.1

■ 참고자료 : [http://www.gks.ru/free\\_doc/new\\_site/population/trud/tab\\_trud1.html](http://www.gks.ru/free_doc/new_site/population/trud/tab_trud1.html)(검색  
일: 2019년 6월 26일)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